

중상위권 하향안전 지원 뚜렷

대입 정시모집 서울대 경쟁률 떨어지고 사립대·지방국립대 상승

2009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서울대의 경쟁률이 소폭 하락한 반면, 주요 사립대와 지방국립대의 경쟁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위권 학생들의 하향안전 지원 경향이 두드러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각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함에 따라 법학과 대신 신설한 자유전공학부(과)의 경쟁률이 대학별 평균 경쟁률을 웃돌아 인기를 실감케 했다.

24일 대학과 입시기관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원서접수가 마감된 서울대

정시모집의 경쟁률은 4.63대1로 지난해(4.82대1)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인문·사회 계열은 대체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상승했지만 자연계는 의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떨어져 수리영역의 변별력 강화에 따라 중상위권 학생들의 소신지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연세대(가군)는 지난해 3.89대1에서 올해 4.17대1로, 고려대(가군)는 3.41대1에서 3.99대1로, 서강대(가군)는 4.47대1에서 5.06대1로, 성균관대(가군)는 3.80대1에서 5.56대1로, 중앙대(나군)는 3.56대1에서

4.50대1로 각각 평균 경쟁률이 올랐다.

성균관대 의예과(4.89대1)와 고려대 의과대학(4.19대1), 서강대 경제연계는 의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떨어져 수리영역의 변별력 강화에 따라 중상위권 학생들의 소신지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중상위권 학생들은 합격 안정권을 찾음으로써 주요대의 중하위권 학과 경쟁률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가는 “올해 정시 모집의 특징 중 하나가

수능 수리영역의 높은 난이도에 의해 변별력이 갖춰지면서 최상위권과 중상위권의 구분이 분명해졌다는 점”이라며 “그 결과 최상위권은 소신지원을 한 반면, 중상위권은 대체로 적정지원, 안전지원 경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중상위권의 안전지원 경향으로 지방 국립대 및 교대의 경쟁률도 올랐다. 지난 23일 접수를 마감한 전남대가 평균 경쟁률 3.44대1로 지난해(3.26대1)에 비해 상승했고, 광주교대 역시 2.62대1로 지난해(1.82대1)보다 높았다. 특히 4.2대1의 경쟁률을 기록

한 부산교대는 지난해(2.08대1)의 배 이상 상승하는 등 전국 대부분 교대가 눈에 띄는 경쟁률 상승 효과를 보였다. 이는 경제난과 취업난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신설된 자유전공학부(과)의 높은 인기는 이번 정시모집의 특징 중 하나다. 서울대 5.93대1, 연세대 7.47대1, 성균관대 가군 6.30대1, 나군 9.44대1, 중앙대 가군 4.60대1, 나군 5.03대1, 다군 63.89대1 등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자유전공학부(과)가 로스쿨이나 의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이 수험생들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수능과 학생부, 논술·구술·면접 등 전형요소와 모집 정원이 균형을 이룬다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다군에서 선택할 대학이 마땅치 않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입시기관들은 분석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9분 해질 17시 26분 달돋이 05시 44분 달질 15시 22분

성탄절! 이웃과 함께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서해안 지방은 오후 늦게 눈이 조금 오는 곳도 있겠다.

광주	구름 많음	1/4C
목포	구름 많음	1/4C
여수	맑음	2/3C
완도	구름 많음	1/4C
구례	맑은뒤 구름 많음	-1/4C
해남	구름 많음	0/5C
장흥	구름 많음	-1/5C
고흥	구름 조금	-1/4C
순천	구름 많음	-1/4C
영광	구름 많음	0/4C
진도	구름 많음	2/5C
전주	구름 많음	1/4C
남원	구름 많음	-1/4C
속산도	구름 많음	4/4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	2.0~4.0m	목포 00:05	05:39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	2.0~4.0m	13:04	18:38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	1.5~4.0m	여수 08:09	01:11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19:51	14:15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31(수)
날씨						
최저/최고	-4/4	-3/8	-1/9	2/7	-1/4	-3/2

조선대 3.4 대 1, 목포대 3.79 대 1

■정시모집 마감

광주대 2 대 1

24일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됐다. 중상위권의 하향안전지원 경향이 현실화되면서 지방국립대의 경쟁률은 오르고 지방사립대는 다소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날 정시모집 원서를 마감한 조선대는 총 2천349명 모집에 7천97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4대1을 기록, 지난해 3.8대1보다 낮아졌다. 다군 영어영문학과가 27명 모집에 261명이 지원해 9.7대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다군 프랑스어과가 6명 모집에 47명이 지원, 7.8대1로 그 뒤를 이었다.

873명을 모집한 목포대는 3천305명이 몰리면서 3.79대1의 경쟁률로 지난해(3.7대1)보다 다소 상승했다.

순천대는 1천313명 모집에 4천534명이 지원해 3.4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대는 672명 모집에 1천345명이 원서를 접수, 평균 경쟁률 2대1을 기록했고, 사진영상학과가 7.38대1(16명 모집 118명 지원)로 가장 높았다. 광주여대는 132명 모집에 531명이 몰려 경쟁률이 4.02대1이었다. 간호학과가 13대1(11명 모집 143명 지원)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호남대는 822명 모집에 1천401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 1.7대1을 보였고, 동신대는 873명 모집에 1천819명이 지원해 2.1대1이었다.

하루 앞서 지난 23일 원서접수를

■주요대학 자유전공학부 정시모집 경쟁률

대학명(군별)	경쟁률
고려대(가군)	3.97 : 1
연세대(가군)	7.47 : 1
성균관대(나군)	9.44 : 1
중앙대(나군)	5.03 : 1
서울대(나군)	5.93 : 1
중앙대(다군)	63.89 : 1

마감한 전남대는 평균 경쟁률 3.44대1을 기록했고, 광주교대는 2.62대1이었다.

고려대는 2천132명 모집하는 안암캠퍼스 일반전형에 8천514명이 지원해 3.9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2,26대1, 전문계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2,76대1 등이었다.

연세대(서울캠퍼스)는 1천518명을 모집하는 가군 일반전형에 6천328명이 지원해 4.17대1, 나군에는 237명 모집에 1천917명이 지원해 8.0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나군 화공생명공학부 경쟁률이 12.73대1로 가장 높았고, 올해 신설된 자유전공학부 7.47대1, 신학계열 7.29대1 등이었다.

서강대는 817명을 모집하는 일반전형에 4천137명이 지원, 5.0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천951명을 모집하는 중앙대(서울캠퍼스)는 1만749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51대1로 집계됐으며, 특히 35명을 선발하는 다군 자유전공학부에는 2천235명이 몰려 63.86대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정성필기자 camus@



산티들의 행진 2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일곡지구 중앙교회에서 열린 '성탄절이제' 행사에 참가한 신도들과 어린이들이 산타 복장으로 성탄절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위력기자 jrwi@

'허본좌'의 몰락...징역 1년6월 확정

지능지수(IQ) 430에 공중부양 및 치유능력, 결혼식 1억원 무상 지원과 유엔본부의 한국 이전 등 17대 대선에서 기이한 언행과 파격적인 공약으로 인터넷 스타로 떠올랐던 허경영 후보(사진). 그의 언동은 정치에 식상해 있던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기엔 충분했지만 결국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데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24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결혼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6월

의 실형을 확정했다.

검찰은 허씨에 대한 수사 결과 무가지, 주간지, 선거공보, 방송 등을 통해 허씨가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표와의 교제·결혼설,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실, 호성그룹과 인맥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 역임설, 유엔 사무총장 후보설 등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연합뉴스

광주교육청 373명 인사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24일 부이사관 등 373명에 대한 인사발령안(2009년 1월1일자)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유육진 광주교육시설감리단장이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해 광주학생문화회관장으로 옮기고, 홍성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이 지방부이사관 승진과 함께 금호평생교육관장으로 전보되는 등 부이사관 승진 2명을 비롯한 서기관 2명 등 승진 인사 73명, 일반직 신규임용 36명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정성필기자 camus@

지방 초·중·고 IPTV로 공부한다

방통위 내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1만천여개 지방 학교에 초고속인터넷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IPTV 사업자들이 수준높은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26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광복회 "건국훈장 반납 등 강력 대응"

건국 60년 책자 관련에게 공모의 뜻을 쥐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문화부에 책자회수와 폐기, 사과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독립유공자들을 도외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건국훈장을 청와대에 반납하는 등의 대응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서감수 공모의 뜻을 쥐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했다"며 "모든 국민들이 배웠듯이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건국에 참여했는데 결국 친일파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82) 227-9940 총장점 (082) 227-9970

www.hanbitoptical.co.kr
전국 최고의 시설 대형학원 공무원 수험생은 한빛에 다 있다.

한빛고시학원
공무원 합격의 필수 조건! 공무원 수험생은 한빛에 다 있다.

www.hanbitoptical.co.kr